

임새주 가격 동결...소비자에 통하다

보해 3분기 5% 매출 신장...지역민과 소통·상생 효과 낮은 공급가격에 음식점 등서 손님 권유로 이어진 듯

69년 향토기업 보해(대표이사 임지선)의 '독심'과 '진심'이 통했다.

그동안 매출 담보상 태를 벗어나지 못했던 보해 임새주가 지난 5월 소주 가격을 잇따라 올린 타사와 달리 가격 동결을 통해 지역민과의 소통과 공감의 효과를 보며 매출이 소폭 올랐다.

29일 보해양조에 따

르면 지난 5월 주요 업체들이 소줏값을 잇따라 올렸지만 보해는 임새주 출고가격을 지난 2016년 8월부터 3년 넘게 1016.9원으로 유지하고 있다. 일부 업체들이 원재료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소주 가격을 올린 것과는 대조된다.

보해의 이 같은 가격 동결로 인해 임새주 지난 3분기 매출은 올 1분기 대비 5% 가량 올랐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총 매출액을 밝힐 수는 없지만 매출이 소폭 늘었다"며 "1분기 보다 3분기 매출이 늘었다는 것은 지난 5월 소주 가격을 잇따라 올린 타사와 달리 가격을 동결한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



임지선 대표이사

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보해의 매출 증가는 일반 소비자들이 마트 등에서 가격이 동결된 임새주를 찾게됐고, 음식점 업주 등은 공급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타사 소주보다 임새주를 손님들에게 권하게 돼 매출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보해 관계자는 "지난 5월 소주시장 75%를 점유하고 있는 주요 업체들이 소줏값을 올린 이후에도 보해는 현재까지 독심 있게 임새주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며 "일부 업체들은 원재료 가격과 인건비 상승 때문에 소줏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지만 보해가 가격을 올리지 않아 설득력을 잃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보해와 달리 경쟁사들은 소줏값을 인상하고 도수까지 낮췄다"며 "소주는 알코올 주정 비율이 높을 수록 원가가 높아진다. 보해와 달리 업체들이 제품 가격은 올리고 도수는 낮춰 이윤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지선 보해 대표는 "보해가 소비자와 자영업자들을 위해 임새주 가격을 올리지 않은 진심을 알아주는 것 같아 감사드린다"며 "설립 70주년을 앞둔 보해는 지역민의 사랑에 보답하고 소비자와 자영업자와의 상생을 위해 임새주 가격을 앞으로도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92.69 (-0.91)	↓ 금리(국고채 3년)	1.50 (-0.02)
↑ 코스닥	658.30 (+5.88)	↓ 환율(USD)	1163.00 (-7.70)

금호고속 '15년 연속' 서비스품질지수 1위

금호고속이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고속버스 부문에서 '15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

금호고속은 2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한국서비스품질지수 시상식'에서 지난 2005년부터 15년 연속 고속버스 부문 1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한국서비스품질지수는 한국표준협회(KSA)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가 국내 서비스산업과 소비자 특성을 반영해 공동 개발한 서비스산업 품질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다. 국내기업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에 대한 만족도 정도를 수집하고, 여기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각 산업군 별 서비스 품질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올해 창사 73주년을 맞은 금호고속은 경영철학인 '고객 행복경영' 실천을 위해 '더 편리하게, 더 안전하게, 더 친절하게'를 목표로 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 임직원이 매달 현장에 직접 나가서, '사고·고장·불만' 예방을 위한 '쓰리 제로(3-ZERO) 현장 캠페인'을 실시하고, 탑승 고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피드백을 받는 '아름다운 행복경영 모니터'를 진행하고 있다. 또 안전한



이덕연 금호고속 사장이 현장의 승무사원을 격려하고 있다.

행 관리 강화를 위해 업계 최초로 첨단 운전자 지원장치(ADAS)와 신 디지털 운행기록계(DTG)도 도입했다.

이를 통해 금호 운전자 위험 관리지수(K-DR)를 산출하고 승무사원의 운전 습관 계도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덕연 금호고속 사장은 "15년 연속 한국서비스품질지수 1위 수상을 통해 고객들에게 다시 한 번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고객과 시장에 발맞춰 앞으로도 업계 수준을 넘어서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 비정규직 45만명 임금근로자 대비 비율 상위권 전국 평균 36%...12년 만 최고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이 5번째로 높았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비율은 광주 37%·전남 39%로 나타났다.

이들 수치는 전국 평균 36.3%를 웃돌았고, 전남은 전국에서 5번째, 광주는 7번째를 기록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광주 21만8000명, 전남 23만5000명 등 총 748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 수는 750만명에 육박하며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년 만에 최고 수준인 36%로 치솟았다.

광주·전남 비정규직 비율은 지난해보다 각각 1.5%포인트, 2.5%포인트 올랐다. 임금근로자 수는 광주 9000명, 전남 1만9000명 증가했지만 정규직 근로자 수는 오히려 줄었다. 광주는 지난해 37만3000명에서 37만1000명으로 2000명의 정규직이 감소했고, 전남은 37만명에서 36만7000명으로 3000명 줄었다.

올해 8월 전국 임금근로자는 2055만9000명이었고 정규직은 1307만8000명이었다. 비정규직 비율은 전북이 45%로 가장 높았고 제주(44.7%), 강원(43.2%), 대전(41.8%), 전남(39%), 충남(37.3%), 광주(37%), 인천(36.9%), 충북(36.8%), 서울(36%) 등이 뒤를 이었다.

/백희준 기자 bhj@



"화음 맞춰 불러요"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문화센터 거울학기(12월1일~2020년 2월29일) 신규 회원을 선착순 모집'하고 있다. 가을학기엔 진행된 '사룟데 합창단' 강좌.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기아차·GS칼텍스, '전기차 신사업' 손잡았다

충전 간편결재 등 서비스...기술·마케팅 협력

기아차와 GS칼텍스가 전기차 생태계 구축과 신사업 발굴을 위해 손을 잡았다.

기아자동차와 GS칼텍스는 29일 서울 강남구 GS타워에서 '전기차 이용 환경 개선 및 신사업 기회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기아차는 GS칼텍스가 운영하는 전기 충전기를 대상으로 ▲간편 결제 서비스 도입 ▲기아차 멤버십 '레드멤버' 제휴 ▲충전·세차·정비 통합 패키지

상품 출시 등 전기차 분야 기술과 마케팅 협력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간편 결제 서비스는 기아차의 전기차 고객이 사전에 신청하고 GS칼텍스에 방문해 충전기 커넥터를 차량에 연결하면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충전과 결제가 이뤄지는 것으로 내년 상반기에 선보일 예정이다.

또 전기차 고객이 GS칼텍스를 통해 충전하면 기아차 멤버십 포인트를 이용해 결제할 수 있도록 한다. 전기차 고객만을 대

상으로 충전과 세차, 정비를 통합 구매하는 패키지 상품도 선보일 계획이다.

전기차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충전기가 설치된 GS칼텍스 사업장에 기아차의 전기차를 전시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기아차는 지난 9월 쉐어마트·에스 트래픽과 손잡고 기아 전기차를 보유한 고객들이 전국 이마트 주요 지점에 설치된 초고속 충전기를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전기차 우선 충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에너지 고효율 가전 사면 10% 돌려드립니다

11월 1일부터 두 달간 전기밥솥·냉장고 등 7개 품목

다음 달부터 두 달간 에너지효율 우수 가전제품 7개 품목을 사는 소비자는 구매가격의 10%를 돌려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으뜸효율 가전 구매 시 개인별 20만원 한도 내에서 10% 환급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 품목은 전기밥솥, 공기정정기, 감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 등 7개다.

환급 대상은 다음 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제품이다. 환급 재원은 약 240억원이며, 조기 소진 시 지원도 종료된다. 다만 재원 소진 추이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는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효율 혁신 전략'에 따라 고효율

가전제품을 보급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8월 23일부터 전기요금 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냉장고 등 10개 품목 환급을 시범 시행했다.

환급 대상 품목은 중소·중견기업 제품에 대한 환급 신청 비중이 크고 에너지 절감 효과가 우수한 가전으로 선정했다. 이번 지원으로 4인 기준 4300가구의 1년 전력 사용량인 연간 약 1만 5095㎾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후에도 중소·중견기업의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매년 지원품목을 정해 환급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환급을 희망할 경우 11월 1일~12월 31일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한 대상 제품의 효율 등급 라벨,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로 신청하면 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